

보도시점

배포시점

배포 2025.10.29.(수) 09:00

6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! 국립과천과학관, 근지점 보름달(슈퍼문) 특별관측회 개최

- 11월 5일 보름달, 2019년 이후 6년 만에 지구와 가장 가까워
- 수능을 앞두고 가장 큰 보름달, 근지점 보름달(슈퍼문)에 각자의 소원을

국립과천과학관(관장 한형주)은 2019년 이후 지구와 가장 가깝고,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는 「근지점 보름달(슈퍼문)」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.

올해 가장 큰 보름달은 지난 4월 13일에 떴던 가장 작은 보름달보다 약 14% 더 크게 보인다.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이 더 크게 보이는데, 11월 5일에 뜨는 보름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(근지점)를 지나며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크고 밝은 달로 관측된다.

이번 특별관측회는 11월 5일(수) 19시부터 22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며 근지점 보름달(슈퍼문) 망원경 관측, 소원 편지 쓰기, 달과 천문우주 관련 만들기 체험, 천체투영관 영상 상영 등 달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.

참가자들은 천문대의 천체망원경으로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직접 관측할 수 있으며, 야외에 설치된 실습용 망원경을 통해 각자의 휴대폰으로 근지점 보름달(슈퍼문)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다.

이번 행사에는 만들기 체험관(체험부스), 소원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. 만들기는 달과 천문우주 관련 만들기로 진행되며, 소원 편지 쓰기 행사는 각자의 소원을 적은 편지를 나무(트리)에 장식해 보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.

천체투영관에서는 달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, 망원경 관측과 만들기, 영상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달 주제 종합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.

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“이번 특별관측회가 올해 가장 큰 달을 보며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을 계획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, 참가자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천체투영관 프로그램(강연 20분, 영상 상영 20분)은 유료 사전예약(1,000 원)으로 진행되며, 천체투영관 외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. 사전예약은 10월29일(수) 09:00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(www.sciencecenter.go.kr)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행사 당일 선착순 300명에게는 보름달 빵도 나눠줄 예정이다. 이번 프로그램은 7세 이상 권장(7~13세 보호자 동반 필수)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국립과천과학관 우주천문과	책임자	과 장	남경욱 (02-3677-1370)
		담당자	연구사	이호준 (02-3677-1373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



♡ 2025년 가장 큰 보름달 ♡

슈퍼문 특별 관측회

“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망원경으로 보며
내년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을 빌어보세요.”

일 시 2025년 11월 5일(수) 19:00 ~ 22:00

장 소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 일대 및 천체투영관

대 상 7세(2018년생) 이상 권장 (7~13세 보호자 동반 필수)

- 행사 내용
- 달 관측
 - 소원 편지 쓰기
 - 달 관련 만들기 부스
 - 천체투영관 영상 관람 등

참여 방법 홈페이지 참조